



지난 20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 KB금융지주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KB금융

윤종규 KB금융회장 연임 확정 “No.1 금융플랫폼 기업 되겠다”

KB금융 임시주주총회 노조 추천 이사는 부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KB금융은 지난 20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4층 강당에서 열린 '2020년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호 안건 :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윤종규)' 및 '제2호 안건 :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 허인)'은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반면 '제3호 안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윤순진)' 및 '제4호 안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 류영재)'은 부결됐다.

이날 주총에서 윤 회장은 “평생금융파트너로서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넘버원(No.1) 금융그룹, 넘버원 금융플랫폼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핵심경쟁력 기반의 사업모델 혁신과 고객이 가장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 혁신,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

한 글로벌 진출 확대, ESG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및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으로의 진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KB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함과 동시에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고객 중심의 디지털 혁신에 앞장서고 있으며, 프르텐셜생명보험 인수를 통해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또 캄보디아 1위의 소매금융사인 ‘프라사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인수해 글로벌 인프라를 넓히는 등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9월에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탈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그룹으로서 ESG 경영에서도 솔선수범해 왔다. /안상미 기자

‘고수익 미끼’ 비상장주식 사기 주의보

피해자 88%가 50대 이상

금융당국이 투자설명회를 통해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유치를 유도하거나 허위 과장된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는 사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전국에 지역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고령자를 유지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일반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주로 자금을 유치한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7.6%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추천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회원들의 매매를 유인하고, 추가적인 주가상승 및 신규회원 유치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서울 및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자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다. 이들 자금은 조직적으로 주식을 매수한 뒤 주가부양



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 주식판매는 다단계방식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사업내용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판매한다. 이들은 주로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팔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 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에 관한 정보는 허위여부를 확인하기 상대적으로 어려우므로 신중해야 한다”며 “주식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코로나 재확산, 세계경제 개선 둔화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유로지역 생산·소비 감소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 강화
경기회복 다소 지연 가능성
중은 내수·수출 모두 회복세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발목이 잡혔다. 개선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속도가 둔화되면서 경기부진에서 쉽게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에 따르면 유로지역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했다. 유로지역의 전기 대비 9월 경제지표는 산업생산이 -0.4%, 소매판매가 -2.0%로 8월 각각 0.6%, 4.2%에서 감소로 전환됐다.

한은은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 급증에 대응해 이동제한 등 확산방지 조치를 강화할

에 따라 경기회복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주요 4개국 평균 이동제한지수는 8월 25.0, 9월 20.8, 10월 25.4에서 이달 1~13일은 45.6로 높아졌다.

미국은 소비를 중심으로 개선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과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

한은은 “최근 미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미시건, 워싱턴 등 일부 주들은 봉쇄조치를 강화했다”며 “대통령 당선인 공식 발표 지연과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등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경제는 수출 개선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일본의 9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0.1%로 지난 8월 4.6%에서 감소세로 전환했고, 서비스 소비도 회복이 지연됐다. 10월 이후 정부의 소비진작책(GoTo캠페인) 확대와 함께 소비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적인 소비회복의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중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10월 산업생산 증가율(+6.9%)이 지난해 평균(+5.8%)을 웃돈 가운데 소매판매 및 수출 증가세기도 확대됐다.

기타 신흥국 중 아세안 5개국은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더딘 모습이다.

한편 11월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40달러 내의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리비아 원유 생산 정상화 등으로 한때 30달러대 중반 수준까지 하락했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10개 비회원국의 연합체 OPEC+의 감산 연장 가능성, 미 원유생산 더딘 회복세 등으로 낙폭을 만회했다.

한은은 “향후에도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전개 및 백신 개발 상황, 주요 산유국의 생산 규모 등에 따라 등락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미래에셋그룹, WM·IB부문 강화 초점 조직개편

글로벌 사업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WM자산관리, IB리스크 관리 강화

미래에셋그룹은 사업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주요 업무직책자 인사를 단행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WM자산관리 역량을 키우고 영업 리스크 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진행해 기존 3총괄 15부문에서 2총괄 15부문으로 변경했다.

WM의 경우 WM마케팅본부와 VIP 솔루션본부를 WM총괄 직할로 편제했다. 서울의 지역본부를 4개에서 5개로 확대 재편했다. 투자가 대중화되고 증권사로 시종자금의 이동이 빨라지는 만큼 해외주식마케팅과 글로벌 자산배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시장 선도자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연합뉴스

된다.

기존 3개 부문이었던 IB는 크게 기업금융과 부동산금융의 2개 부문으로 재편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고 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트레이딩도 총괄을 폐지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리스크 관리를 챙기는 한편 S&T부문을 신설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설외부위탁 운용(OCIO)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케팅3부문을 신설했다. 또한 부동산부문을 확대 개편해 국내·해외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PEF2부문 신설을 통해 투자영역을 확대하고 상품개발역량 강화를 위해 상품전략본부를 부문으로 승격하는 등 기존 조직을 5총괄 26개 부문에서 6총괄 28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도 보험 판매 채널의 변화 추세에 맞춰 법인보험대리점(GA)과 방카슈랑스 채널을 확대해 제휴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현재 2총괄 9부문을 2총괄 11부문으로 확대 개편했다.

회사 관계자는 “여성 부문대표 선임 등 성과에 기반한 과감한 발탁을 통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송태화 기자 atvin@

HDC현산, 광진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708억 규모, 지상4~지상24층 1개동
시공사 총회사 98% 득표율로 선정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광진구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1일 오후 2시에 개최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93명, 출석 조합원 총 167명 가운데 164명의 찬성을 얻어 98.2%의 득표율로 조합의 높은 신임을 얻으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장동 상록타워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은 총사업비



상록타워리모델링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708억원 규모로 지하 4층~지상 24층 1개동, 229가구(일반분양 29가구)를 공급한다.

상록타워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강

변역)과 5호선(광나루역)이 인접한 역세권이며, 광남초·중·고가 인접해 있고 강변북로 진·출입이 수월하며 한강 조망 프리미엄도 갖추고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고 리모델링 후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지만 잠원한신로얄, 대치현대1차, 대치2단지, 가락현대6차 등 4곳에 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국내 최초로 적용한 신공법인 뜬구조공법으로 청담아이파크 리모델링 지하공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정연우 기자 ywj964@